명승부의 연속…LG vs KT 프로농구 6강 PO 흥행 폭발

3월 24일 창원 실내체육관을 가득 메운 관중들. 창원 LG와 부산 KT의 낙동강 더비는 '팬들은 재밌는 경기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사진제공 | KBL

낙동강 더비가 불러온 '농구의 봄'

창원선 노란 물결…부산선 빨간 물결
팬들 뜨거운 응원 힘입어 명승부 연출
'재밌는 경기는 팬들이 몰려온다' 입증

"재미있는 경기로 경상도에 농구 붐을 일으키겠다."

플레이오프 미디어데이에서 김종규(창원 LG)가 말했던 대로 농구의 봄바람이 경상도에 불고 있다. 2018~2019 SKT 5GX 프로농구 6강 플레이오프(5전 3승제) 창원 LG와 부산 KT의 '낙동강 더비'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KBL에서도 손꼽히는 팬 층을 확보하고 있는 창원 LG는 '농구 도시'라는 별명답게 경기장을 가득 메웠다. 경기 시작 전, 5000여명의 관중이 구단에서 준비한 노란 티셔츠를 입고 경기장 전체가 노랗게 물드는 장관을 만들어 냈다. 팬들의 응원에 창원 LG의 선수들도 힘을 얻었다. 3월 24일 1차전에서 김시래의 극적인 3점골과 종료 2.5초전 터진 동점골로 승부를 연장으로 이어갔고 강병현이 3점슛과 함께 자유투를 얻어내며 승리를 굳혀 체육관을 뜨겁게 달궜다.

3월 26일 2차전에서는 한때 11점까지 리드를 내줬지만 뒷심을 발휘하며 4쿼터에 대 역전극을 이뤄냈다. 창원 LG의 김시래는 KBL TV와의 인터뷰에서 "팬들의 응원에 힘입어 승리할 수 있었다"며 뜨거운 분위기를 만들어준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보냈다.

먼저 2패를 당하며 탈락 위기에 몰린 부산 KT는 3월 28, 30일 홈에서 열린 3, 4차전에서 반전을 펼쳤다. 이번에는 빨간 물결이 부산을 뒤덮었다. 경기장을 빨갛게 물들인 팬들의 함성에 힘입은 부산 KT는 시즌 초반 좋았던 경기력이 살아나며 2연승을 거뒀다. 특히 3차전 경기에서 부산 KT는 역대 플레이오프 한 경기 최다 기록인 18개의 3점슛을 성공시키며 103-83으로 크게 승리했다. 부산 KT 양홍석은 "가장 익숙한 코트에서 홈 팬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자 했다"며 살아난 양궁농구의 비결이 팬들에게 있었다고 말했다.

분위기를 탄 부산 KT의 젊은 선수들은 4차전까지 승리로 장식하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경기 초반 창원 LG의 압박수비에 고전했지만 3쿼터에서 부산 KT의 특유의 3점슛이 터지기 시작하며 역전에 성공했다.

유례없이 뜨거운 경기장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비슷한 지역을 연고로 한 두 팀이 만났기 때문이다. 경기장을 가득 매운 홈 팬은 물론 가까운 거리에 있는 원정 팬들까지 경기장을 찾아 관중석에서도 대결 구도가 형성됐다. 치열한 경상도 더비는 경기가 재밌으면 팬들은 자연스럽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신동현 객원기자 rerydh93@naver.com

고려대 에이스 김호 "공격·수비 안 가린다"

서울대와 U리그 개막전 승리 이끌어
만능 플레이어…전술 핵심자원 평가

짜릿한 골을 넣는 스트라이커보다 경기를 조율하고 풀어나가는 미드필더의 역할이 돋보일 때도 있다. 3월 22일 열린 고려대와 서울대의 2019 U리그 개막전에서 고려대의 김호가 바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팀을 2대1 승리로 이끌었다.

상대적 열세라 평가받은 서울대는 전체적으로 라인을 내려 수비적으로 경기에 임했다. 이에 고려대는 강하게 압박하며 라인을 끌어올렸다. 경기의 템포를 조율한 김호는 현란한 드리블로 수비를 벗겨내는가 하면 거친 태클을 피해 볼을 지켜내는 간수능력까지 보여줬다.

경기 후 김호는 "평소엔 수비 사이에서 공을 몰며 공격 포인트를 노리지만 상황에 따라 수비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강점으로 "수비를 두려워하지 않고 볼을 지켜 동료들에게 전달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섀도 스트라이커부터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가리지 않고 플레이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표했다.

김호의 등번호 10은 FC서울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조영욱이 사용했던 고려대 축구부 에이스를 상징하는 번호다.

고려대 서동원 감독은 "김호는 전술적인 핵심자원"이라며 "볼을 다루는 기술이 뛰어나 창조적인 드리블이 가능한 키플레이어"라고 평가했다.

김호는 한일 대학축구정기전 덴소컵에도 차출되어 경쟁력 있는 선수로 거듭나고 있다. 꾸준히 기량을 유지해 프로무대에 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모교 축구부에 대한 헌신도 잊지 않았다. 그는 "팀이 강해져서 U리그, 왕중왕전에서 우승을 하고 당당히 프로에 진출해 활약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태형 대학생 명예기자(고려대 지리교육과)
nakakth1@naver.com

고려대 축구부 '에이스' 김호. 사진제공 | 김호

주전보다 나은 백업? '역대급 서브 골키퍼'

〈로메로·카바예로〉

조명받는 주전 선수들의 뒤에서 묵묵히 활약하는 백업 선수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팀의 패배를 막는 골키퍼를 뒷받침하는 서브 골키퍼들의 활약은 더욱 소중하다. 백업인 것이 아까울 정도의 '역대급 서브 골키퍼'로 이름을 날린 선수들을 만나보자.

올 시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세르히오 로메로는 최고의 서브 골키퍼가 되었다.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신들린 선방쇼로 아르헨티나를 24년 만에 결승으로 이끈 로메로는 2015년 올드 트래포드에 입성했다. 입단 직후, 토트넘과의 리그 개막전에 선발 출전해 무실점 경기를 뽐내며 팬들에게 자신을 소개했다.

그러나 이적 문제를 앓던 다비드 데헤아가 재계약을 하는 바람에 아쉽게 서브 골키퍼가 되었다. 맨유 소속 통산 44경기에 나서 단 22실점만을 허용했고, 클린시트는 무려 28회를 기록했다. 영국 매체 '선'에 따르면 이는 역대 맨유 골키퍼 사상 최고의 클린시트 비율이다.

맨시티와 첼시에서 활약한 윌리 카바예로도 '역대급 서브 골키퍼' 반열에 올랐다. 카바예로는 2014년 맨시티로 이적해 조 하트의 백업으로 활약했다. 2015~16시즌에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지만 캐피탈원컵 결승 승부차기에서 3연속 선방으로 맹활약했다. 이후 2017년 첼시로 둥지를 옮겼지만 컵 대회에 강한 DNA를 이어가며 FA컵 우승과 카라바오컵 4강을 일궈냈다.

유형준 대학생 명예기자(경동대 스포츠마케팅학과)
lowbylow44@naver.com